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Gyoung Hwa Kim[#], Eun Kyoung Sh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Campus,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ing factors of depression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in Korea. The data were provided by the 9th, 10th, and 11th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followed a free growth model at a decreasing trend. Second, health condition, working capability, househol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and housing, economic activity, and stress from family life influenced the initial status of depression, while working capability, economic activity, self-esteem, and satisfaction from leisure activities affected on the change rate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ies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on how to deal with depress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Key words: the physically disabled,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longitudinal stud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남용, 환경문제 등 다양한 장애발생 위험요인의 증가에 의해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정 장애인구는 2000년 약 144만명, 2005년에는 214만명, 2017년에는 267만명으로 2000년 이후 장애인구가 123만명이 증가하였다.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며,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일컫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서 일반인보다 더 우울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Desrosiers, *et. al.*, 2002). 또한 신체기능유지가 어려워져서 다각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각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참여수준의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고독, 그리고 소외감 같은 복합적인 심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우울문제들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Desrosiers, *et. al.*, 2005).

[#] The 1st author: Gyoung Hwa Kim, Tel. +82-41-354-3328, e-mail. kghwa40@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Eun Kyoung Shin, Tel. +82-41-550-3241, Fax. +82-41-559-7853, e-mail, fiat87@dankook.ac.kr

Song, *et. al.*(2013)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기능의 상실이나 질병에 부딪치면서 자아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지나친 의존과 퇴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무력감, 분노와 수치심,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은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비수용성, 사회편견 등을 내면화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는 경우에 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하였다(Friendland & McColl, 1992). 특히 장애 및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의 저하로 스트레스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우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Jeon & Kahng, 2009).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우울증 경험률은 24.5%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우울증 경험률 10.3%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률은 19.9%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자살 생각률 4.2%에 비해 4.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우울증이 심각할 경우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 및 장애수준을 더 악화시키고, 자신의 장애수용과 재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살의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3; Gweon, 2010; Kim, *et. al.*, 2007; Park, 2018). 또한 우울은 삶의 질 저하와 자살 등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고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Kwon, 2012).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있어서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부분 횡단적인 접근방식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 우울과 관련해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른 특정집단의 우울에 관한 연구(Son, 2003; Kim, *et. al.*, 2004; Ahn, 2007; Park & Kwon, 2009; Lee & Hoe, 2012; Cho & Seo, 2012;

Jeong, 2014; Kim, 2015; Kim, 2016; Kim, 2016; Koo, 2017), 장애인인으로 구분된 특정집단의 우울에 관한 연구(Yoo, 2001; Hyun, 2003; Park, 2013; Kim & Koo, 2017), 차별경험과 우울에 관한 연구(Jeon, 2010; Kim, 2012; Song, *et. al.*, 2013; Cha & Lim, 2013),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집단의 우울에 관한 연구(Kwon & Park, 2005; Lee & Kahng, 2009; Kong, 2010; Gwon, 2010; Kim, *et. al.*, 2014; Jung, 2014; Kim, *et. al.*, 2017; Park, 2018), 치료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우울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Jung, 2003; Park, 2004; Kim, 2007; Kim, *et. al.*, 2008; Oh, *et. al.*, 2009; Song & Won, 2012; Kim, *et. al.*, 2013; Kim, 2013; Kim, *et. al.*, 2014; Park & Yoon, 2014; Hong, *et. al.*, 2015; Lim & Park, 2016; Moon & Yoo, 2017) 등은 다수가 있으나, 장애인의 우울과 관련한 종단적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살펴보면, Jeon & Kahng(2013)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추적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해 연령, 성별, 교육, 소득의 통제변수, 위험요인(차별경험,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필요정도), 보호요인(사회적지지, 자존감)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Jeong & Park(2016)는 3차년도에서 10차년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시간위험모형을 통해 장애인의 우울(우울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Park, *et. al.*(2009)에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우울에 대한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각 연도별 우울평균점수를 비교한 것에 그치고 있어서 발달궤적의 개인내적인 차이를 보여 줄 수 없었다. 또한 Cho & Seo(2012)는 1차년도에서 4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원이 만 19~65세 미만의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인구, 심리환경적

요인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사회경제적, 장애 및 건강, 심리환경적 요인 등 관련 변인들간의 영향력을 비교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우울의 예측요인에 대해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울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요인들을 다면적(인구사회학적 변인, 장애 및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환경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신체적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즉 신체적 장애는 주요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를 포괄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로 이루어져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이러한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단연구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은 어떤 모형으로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 인구사회학적변인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장애 및 건강요인 관련 변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심리환경요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Sohn, 2005; Park, *et. al.*, 2009; Jeon & Kahn, 2009; Lee & Kahng, 2009; Gweon, 2010; Cho & Seo, 2012). 이와 관련하여 Mroczek & Kolarz(1998)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삶의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2016) 연구에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우울증상에 취약함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과 우울수준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Lee & Hoe, 2012; Song, *et. al.*, 2013; Song & Won, 2014) 연구마다 다소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는 일반 성인집단에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의 초기 값이 높았고, 이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Kanhnng, *et. al.*, 2015) 등이 있지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Jeon, 2010; Kim, *et. al.*, 2004)도 있어서 이 또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가 어렵다.

연령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희망, 새로운 것에 도전의 기회가 적어지고, 실패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우울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Kwon & Park, 2005; Kanhnng & Kwon, 2008; Gweon, 2010; Cho & Seo, 2012; Song & Won, 2014; Kahng, *et. al.*, 2015)이 있지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Moon, 2010; Lee & Hoe, 2012; Song, *et. al.*, 2013;

1) <http://www.law.go.kr/행정규칙/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2018. 11. 25 인출

Jung, 2014)도 있어서 이 또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

교육수준과 우울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et. al.*, 2009). 이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울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Lee & Kahng, 2009)도 있으며, 성인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우울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2010; Jeon & Kahng, 2013; Kim, *et. al.*, 2014; Kim, *et. al.*, 2004; Lee & Hoe, 2012).

종교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소속감을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Song, *et. al.*, 2013) 등이 있지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Jeon, 2010; Kim, *et. al.*, 2014; Kim, *et. al.*, 2004)도 있어서 이 또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

2. 장애·건강관련 요인

장애·건강관련 요인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음주량, 건강상태, 장애등급, 만성질환정도, 근로능력정도가 있다(Kahng & Kwon, 2008; Manninen, *et. al.*, 2006; Kahng & Kwon, 2008; Kwon & Park, 2005; Kim, *et. al.*, 2004; Song, *et. al.*, 2013; Lee & Kahng, 2009; Jung, 2014; Alschuler, *et. al.*, 2008; Kwon & Park, 2005; Park, *et. al.*, 2009; Cho & Seo, 2012; Kim, *et. al.*, 2014; Kim, *et. al.*, 2007; Park & Kwon, 2009; Jeon, 2010; Kim, *et. al.*, 2004; Lee, 2012; Kim & Sohn, 2005; Okoro, *et. al.*, 2009; Light, *et. al.*, 1985; Kim & Lee, 2017).

음주량과 관련해서는 Kahng & Kwon(2008)는 음주량과 우울수준 간의 양방향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et. al.*, 2009)에서는 매년 우울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알코올 의존집단의

경우에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음주가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Yoon & Park(2011)에서도 음주가 장애인의 정서적 적응의 선행요인이며, 문제음주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 & Seo(2012)는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초기값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의 감소추세가 더디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음주는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지적하였다(Rasmedden & Greer, 1981; Joo, 2004재인용; Manninen, *et. al.*, 2006).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won & Park, 2005)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수준이 높을 확률이 증가하였고, 지체장애인에서도 주관적 건강과 자아통제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4). 이는 주관적 건강이 나쁠수록, 자아통제감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 Kahng(2009)는 건강상태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Jung(2014)은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장애노인이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장애등급과 관련해서 장애수준을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에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Alschuler, *et. al.*, 2008), 성인장애인(Kim, *et. al.*, 2014)과 신체장애인(Park, *et. al.*, 2009; Cho & Seo, 2012)의 경우에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1-3등급 집단이 4-6등급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7).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지체장애인(Kim, *et. al.*, 2004)과 성인장애인

(Jeon, 2010)의 경우 장애등급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만성질환과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Lee(2012)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우울경향을 볼 수 있고, Kim & Sohn(2005)에서는 만성질환이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Okoro, *et. al.*(2009)는 장애나 만성 신체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심리사회적 부적응 및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만성장애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에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울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Light, *et. al.*, 1985).

근로능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여부와 사회적 지지만이 장애인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Lee, 2017).

3.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구원 수,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경상소득, 경제활동상태,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만족도가 있다.

가구원의 수와 가구 구성형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 구성형태 중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nsseue, *et. al.*, 2008). Kim & Cho(2011)은 가족구조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구성원 수는 우울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인 가족과 비교할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구성원들이 더 높은 우울증을 보였다. 그러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ng(2010)은 가구원 수의 변화와 가구 구성형태는 우울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만족은 부정적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우울을 완충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Krause & Chark, 1994). 또한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 & Seo, 2012), Jeon & Kahng(2009)은 가족관계는 가족원의 우울증상 변화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만족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won, 2014)에서는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eon & Kahng(2009)에서는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에서 우울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ung(2010)에서는 가족수입만족도는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에서 우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인 경상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우울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실제 소득의 증가보다 가구원이 지각하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2013). Kwon & Park(2005)은 직업이 없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았고, 직업활동여부가 척수손상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Yoo, 2001). 또한 소득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 2010; Shin, *et. al.*, 2011).

장애인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 실업자나 취업자든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 2010). 그러나 직업유무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Shin, *et. al.*, 2011)도 있다. Park, *et. al.*(2009)는 고용상태의 변화와 우울감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실업의 상태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상태에서 실직상태로 이동한 개인에게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발견하였다(Dooley & Prause, 2004).

Lim & Kim(2005)은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혈

압, 소화불량, 수면장애, 심장 및 순환계장애 등 신체적인 건강악화뿐만 아니라 불안, 의욕상실, 우울 등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취업 및 재취업 실패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03; Cho & Seo, 2012). Cha & Lim(2013)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경제적 참여를 많이 할수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켜 우울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척수손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2001).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취업여부와 우울은 서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들(Kim, *et. al.*, 2004; Song, *et. al.*, 2013)도 있다.

Weich & Lewis(1998)는 경제적 곤경이 정서장애의 유발이나 지속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증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Angel, Frisco, Angel, & Chiriboga, 2003). Park & Lee(2004)은 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일반인에 비해 신체화, 우울, 공포불안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Honey, *et. al.*, 2011).

주거환경은 가구원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저주거면적과 주택의 필수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월등히 높고, 거주형태가 월세나 전세인 경우에는 자가에 비해 우울 발생이 높았다(Kim, *et. al.*, 2013).

Choi & Park(2012)에서는 난방시설과 주택가격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의 소유형태도 우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거환경만족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Jeong & Park, 2016). 또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일 경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가구에 비해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Gilman, *et. al.*, 2003),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Jeong & Park, 2016).

4. 심리환경 요인

심리환경 요인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스트레스, 가족책임부담이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우울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져서 우울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Lee & Kahng, 2009).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는데(Lee & Kahng, 2009; Jeon, 2010; Cho & Seo, 2012; Jeon & Kahng, 2013; Jing, 2014), 특히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초기의 우울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Seo, 2012), Jeong & Park(2016)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탈출 가능성 높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감소 추세가 더 빠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Jeon & Kahng, 2013), 또는 장애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 Kahng, 2009; Jeon, 2010).

여가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우울탈출 가능성 높게 나타나 집단적 음악치료를 통한 여가생활은 장애인의 우울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e, 2011). 또한 집단을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의미 있게 완화시켰다고 하였다(Park & Yoon,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정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2000). Lee(2015)은 가족 스트레스는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 Shin(2014)는 가족 스트레스는 가

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의 상호작용과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성인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장애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져 부정적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Lee & Kahng, 2009). Sung, *et. al.*(2005)에서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부담감은 결국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부담감이 높아지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정신건강이 악화된다고 하였다(Kim, 2010). Lim(2004)은 가족부담감이 클수록 우울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Oh, *et. al.*(2000)에서는 가족부담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7)은 가족부담감과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족부담감이 우울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이러한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울발달궤적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장애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아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은 어떠한 모형으로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가설 1. 인구사회학적변인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 및 건강요인 관련 변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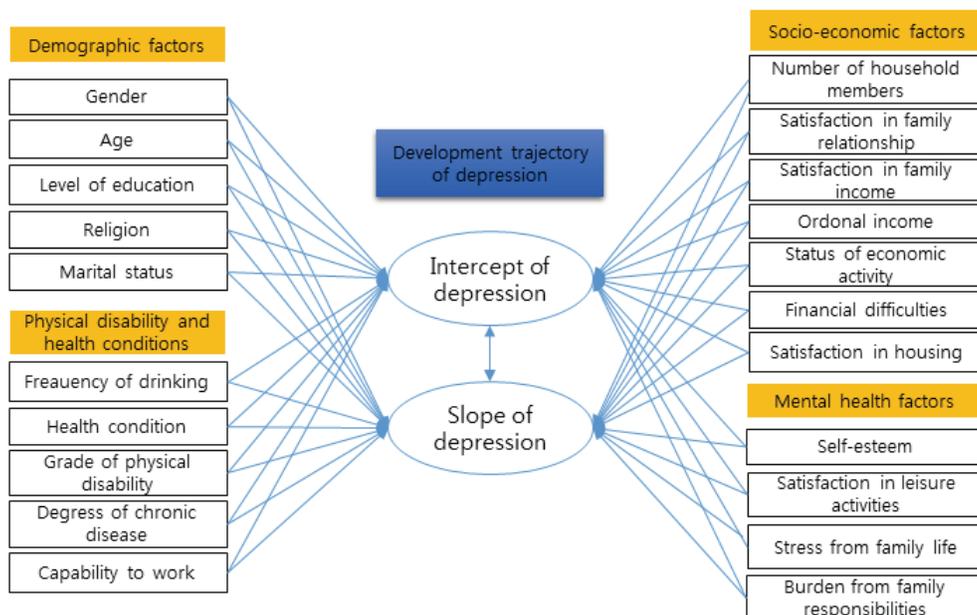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1. Data sampling process

	Total number of cases	Sampling physically disabled individuals	Sampling age	After removing missing data
2014_9th year	17,134people	1529people	574people	189people
2015_10th year	16,664people			
2016_11th year	15,989people			

가설 4. 심리환경요인들은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로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 등의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종단자료이다. 그중 9차년도(2014년), 10차년도(2015년), 11차년도(2016년) 등 3개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에서 신체적 장애인인 1529명 중에서, 2014년도 기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은 574명이었다. 그중 우울 등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사례수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89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89명의 연구대상자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56.1%로 여자 43.9%보다 약간 더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33.9%로 가장 많고, 초졸 32.3%, 중졸 19.0%, 전문대졸 6.3%, 대졸 4.2%, 무학 3.2%, 대학원 석사 1.1% 등으로 분포되었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 있음이 49.2%,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음이 50.8%로 각각 절반씩 차지하였다. 종교는 응답자의 52.4%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47.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여부와 관련해 참가하는 경우는 46.6%,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53.4%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적어려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자는 57.1%, 비해당자는 42.9%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장애 종류에서는 지체장애가 65.1%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3.2%, 신장장애 9.0%, 청각장애 2.6%,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등이 각각 2.1%씩, 호흡기장애가 1.6%, 장루, 요루

장애가 1.1%, 간 장애, 안면 장애가 각각 0.5%씩 분포되었다.

장애등급은 1급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4급 19.0%, 2급 18.5%, 5급 31%, 5급 16.4%, 3급 14.8%, 6급 9.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106	56.1
	Female	83	43.9
Education	None	6	3.2
	Elementary school	61	32.3
	Middle school	36	19.0
	High school	64	33.9
	Technical college	12	6.3
	College	8	4.2
	Masters	2	1.1
Marital status	Married	93	49.2
	Other(Not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etc.)	96	50.8
Religion	Yes	99	52.4
	No	90	47.6
Economic activity	Does not participate	101	53.4
	Participates	88	46.6
Financial difficulty	Not applicable	81	42.9
	Experiences difficulties	108	57.1
Type of physic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123	65.1
	Brain disorder	4	2.1
	Visual impairment	25	13.2
	Hearing impairment	5	2.6
	Renal disorder	17	9.0
	Cardiac lesion	4	2.1
	Respiratory disorder	3	1.6
	Liver disease	1	0.5
	Facial disfigurement	1	0.5
	Intestinal fistula, uorrhoea	2	1.1
Epilepsy	4	2.1	

Grade of physical disability	Grade 1	41	21.7
	Grade 2	35	18.5
	Grade 3	28	14.8
	Grade 4	36	19.0
	Grade 5	31	16.4
	Grade 6	18	9.5
Total		189	100.0

3. 측정도구

1) 우울

우울은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 10차년도(2015년), 11차년도(2016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식 측정은 CESD-1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11은 Radloff가 1977년에 개발한 20문항을 11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며,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1점)에서 대부분 그렇다(4점)로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시에는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없이 생활하였다의 2문항은 역코딩 한 뒤 1, 2, 3, 4로 되어진 변수값을 0, 1, 2, 3으로 리코딩하여 합산을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 한 후 20/11을 곱하여 활용하였고, 우울점수는 0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9차년도 우울 신뢰도는 Cronbach α =.86, 10차년도 우울신뢰도는 .89, 11차년도 우울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종교유무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연령은 생활연령을 측정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미취학(0점)-박사(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학력을 의미한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 기타 사별, 미혼, 이혼, 별거 등은 0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종교유무와 관련하여 종교있음은 1, 종교없음은 0으로 더미변수를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장애 및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은 음주량, 건강상태, 장애등급, 만성질환정도, 근로능력정도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

음주량은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1년간 평균 음주량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을 리코딩하여 전혀 마시지 않는다(1점), 월 1회 이하(2점), 월 2-4회(3점), 주 2-3회(4점), 주 4회 이상(5점) 등으로 5점 척도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건강상태는 9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점)에서 아주 건강하다(5점) 등으로 5점 척도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장애수준의 경우, 장애등급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으며, 1급=6점, 2급=5점, 3급=4점 4급=3점, 5급=2점, 6급=1점으로 역코딩하여 6점 척도로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장애수준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은 9차년도 복지패널 자료에서 만성질환 투약정도를 비해당(1점),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2점),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다(3점),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4점) 등으로 4점 척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성질환 투병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능력정도는 9차년도 데이터에서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1점), 단순근로미약자(집단일만 가능)(2점),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3점), 근로가능(4점) 등으로 4점 척도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4)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가구원수,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경상소득, 경제활동참가여부, 경제적어려움 등의 문항을 사용해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원수는 9차년도 데이터 그대로 투입하였으며, 최소2명, 최대 8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분석에 바로

Table 3. Explanation of main variables

Category	Name of variable	Explanation	Measurement of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① No appetite, ② Very depressed, ③ Slept relatively well, ④ Everything seemed difficult, ⑤ I felt lonely as if I were alone in the world, ⑥ I could not sleep well, ⑦ I felt as if people were cold towards me, ⑧ I did not have many dissatisfactions in my daily life, ⑨ I felt as if people hated me, ⑩ I felt sad, ⑪ I had no idea as to what I should do,	1, Very Rarely 2, Rarely 3, Sometimes 4, Almost Always
Demographic factors	Gender	Gender	1= Male, 0=Female
	Age	Age	1=20's, 2=30's, 3=40's, 4=50s, 5=60s, 6=70s
	Education	Education	1= Preschool, 1= No education, 3=Elementary school, 4=Middle school, 5=High school, 6= Technical college, 7=College, 8=Graduate school (master's)
	Marital status	Marital status	1= Married, 0= Other (Widowed, Not married, Divorced, Separated)
	Religion	Religion	1= Yes, 0=No
Physical disability and health conditions	Frequency of drinking	Frequency of drinking	1= Never Drink, 2= Less than once a month, 3= 2-4 times a month, 4= 2-3 times a week, 5= 4 or more times a week
	Health condition	Health condition	1= Health is in very bad condition, 2= Not very healthy, 3= Average, 4= Relatively healthy, 5= Very Healthy
	Grade of physical disability	Grade of physical disability	Grade 1= 6 points, Grade 2= 5 points, Grade 3= 4 points, Grade 4= 3 points, Grade 5= 2 Points, Grade 6= 1 point
	Chronic disease	degree of chronic disease	1= Not applicable, 2= Received treatment and medication for less than 3 months, 3= Received treatment and medication for 3-6 months, 4= Received treatment and medication for 6 months or longer
	Capability to work	Capability to work	1= No economic activity because not capable of working, 2= Incapable of doing simple labor (only housework), 3= Able to do simple labor (economic activity from home), 4= Capable to work
Socio-economic facto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Peopl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1= Very dissatisfied, 2= Somewhat dissatisfied, 3= Neutral, 4= Relatively satisfied, 5=Very satisfied
	Satisfaction in family income	Satisfaction in family income	1= Very dissatisfied, 2= Somewhat dissatisfied, 3= Neutral, 4= Relatively satisfied, 5=Very satisfied
	Satisfaction in housing	Satisfaction in housing	1= Very dissatisfied, 2= Somewhat dissatisfied, 3= Neutral, 4= Relatively satisfied, 5=Very satisfied
	Ordinal income	Ordinal income	Annually (Unit: 10,000 KRW)
	Status of economic activity	Status of economic activity	1=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0= Does no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Financial difficulties	Financial difficulties	1= Applicable, 0= Not applicable
Mental health factors	Self-esteem	① I have a good character, ② I am a person of value, ③ I have a positive attitude, ④ I work well with other people ⑤ Overall, I am satisfied, ⑥ I wish I could respect myself, ⑦ I feel that I am a failure, ⑧ I feel like I am a useless person, ⑨ There is not much to brag about in me, ⑩ I feel like I am not a good person,	1= Not Always true, 2 = Relatively not true, 3= Average, 4= Relatively True, 5= Always True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1= Very dissatisfied, 2= Somewhat dissatisfied, 3= Neutral, 4= Relatively satisfied, 5=Very satisfied
	Stress from family life	Stress from family life	1= Never true, 2= Not true, 3= Average, 4=True, 5=Very True
	Burden from family responsibilities	Burden from family responsibilities	1= Never true, 2= Not true, 3= Average, 4=True, 5=Very True

투입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등은 9차년도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식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경상소득은 연속변수로서 바로 투입하였고,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참가는 1, 비참가는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경제적어려움은 해당=1, 비해당=0으로 역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5) 심리환경적 요인

심리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스트레스, 가족책임부담 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한국복지패널자료 중 9차년도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이 패널자료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항상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변수값을 역코딩하여 총 10문항의 평균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분포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2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만족도는 9차년도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생활만족도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단일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식하는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정생활스트레스는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와 가족책임부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차년도 데이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등으로 5점 척도로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족책

임부담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인의 종단적인 우울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장애 및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환경적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수의 변화를 모형화하여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이며, 평균적인 발달궤적을 추정하고 발달궤적양상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모형이다(Hong, 2008). 즉, '변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가 무엇인가'를 밝혀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변수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가 발생하는 데 그 변수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개인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의 변화패턴을 검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변화패턴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인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은 집단의 평균을 사용하여서 개인차의 유의정도는 알 수 없었는데, 잠재성장모형은 변인의 변량에 대한 유의도를 통해서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차가 있다면 예측변인들을 설정하고 그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은 신체적 장애인의 평균적인 우울변화양상과 이러한 변화양상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이 무엇인지 밝히 고자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SPSS 24.0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해 자료의 정상성 등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패널자료의 경우 대다수 결측치가 존재하며, 이런 결측치로 인

해서 분석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모수추정방법인 ML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Kline, 2005).

다음으로 잠재성장모형은 Amos 24.0을 사용하여 ML 추정방식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무조건모형과 선형모형 2가지 모형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통계량, RMSEA와 증분적합지수 중 NFI, CFI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는 속성이 있어서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 한

다. 즉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NFI와 CFI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ae, 2007). 둘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1차 년도의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건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모형이 적합할지를 앞서 설명한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서 확인한 후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술적 통계량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이외에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Kline(2011)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왜도는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subjects

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Depression	9th year	1.82	47.27	15.35	10.45	.834	.216
	10th year	1.82	49.09	13.17	10.49	1.026	.772
	11th year	1.82	45.45	12.41	9.67	1.117	1.080
Age		22	64	53.87	8.97	-1.140	.990
Frequency of drinking		1	5	1.94	1.33	1.047	-.387
Health condition		1	5	2.72	0.96	.318	-.785
Grade of physical disability		1	6	3.19	1.65	.142	-1.226
Chronic disease		1	4	3.33	1.21	1.326	-.151
Capability to work		1	4	3.38	0.91	-1.200	.20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8	2.41	1.35	1.107	1.377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1	5	3.36	0.84	-.601	-.268
Satisfaction in family income		1	4	2.25	0.83	.562	-.076
Satisfaction in housing		1	5	3.30	0.80	-.712	-.011
Ordinal income		7	12755	2790.21	2473.31	1.730	3.054
Self-esteem		1.78	4.11	3.13	0.49	-.259	-.459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1	4	2.62	0.83	-.022	-.581
Stress from family life		1	5	2.64	1.02	.435	-.690
Burden from family responsibilities		1	5	3.11	1.12	-.234	-1.112

※ Data for all variables, except for data for depression, is from the 9th Korea Welfare Panel Study

다고 하였다. 이 기준에서 우리 데이터는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우울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0~60점까지로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9차년도는 평균 15.35점이었으나 10차년도는 13.17점, 11차년도는 12.41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정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인 연령은 평균 53.9세로 나타났다. 장애 및 건강요인인 음주량은 5점 만점 중 평균 1.94점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평균 2.72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으로 살펴본 장애정도는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정도는 4점 만점 중 3.3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근로능력은 4점 만점 중 평균 3.38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인 가구원수는 평균 2.41명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가족관계만족도는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고, 가족수입만족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2.25점을 보였다. 또한 주거환경만족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3.30점을 보였고, 경상소득은 연평균 2790만원의 소득수준을 보였다.

심리환경적 요인 중 5점 척도로 조사한 자아존중감은 평균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의 여가생활만족도는 평균 2.62점, 5점 만점의 가정생활스트레스는 평균 2.64점, 5점 만점의 가족책임부담감은 평균 3.1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우울 발달궤적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합한 발달궤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Table 5>와 같

이 4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모델1은 우울 발달궤적은 초기값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은 가정하지 않은 모델이고, 모델2는 선형성장모형은 초기값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로 고정한 모델이고, 모델3은 비선형 성장모형은 초기값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4로 고정한 모델이며, 모델4는 자유성장모형은 초기값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1, 2차년도 요인계수는 0, 1로 고정하지만 변화율의 3차년도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하는 모델이다(Jeong, 2007; Noh, 2009). 4가지 모델 중에서 자유성장모형인 모델 4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우울의 발달궤적이 자유성장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적합도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χ^2 , CMIN/DF, CFI, TLI, RMSEA 등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서 CFI, GFI, NFI, TLI는 대략 .90 이상이면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Yu, 2012), RMSEA 값은 .06 이하면 좋은 모형, .08 이하는 적절한 모형, .10 이상은 나쁜 모형으로 분류된다(Hu & Bentler, 1999).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가 분석한 자유성장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979$, $p=.115$, $RMSEA=.072$, $CFI=.964$, $NFI=.929$ 등으로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에서 자유성장모형의 우울 발달궤적 추정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15.33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2.589($p<.001$)로 wave 증가시 2.589만큼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Table 5. Goodness of fit on depression model

Model	$\chi^2(df)$	χ^2/df	p	CFI	NFI	RMSEA
Model 1: Constant	20,416(6)	3,403	.002	.821	.756	.113
Model2: Linear	7,703(4)	1,926	.103	.966	.908	.070
Model 3: Non-Linear	9,046(4)	2,262	.060	.937	.892	.082
Model 3: Free	5,936(3)	1,979	.115	.964	.929	.072

Table 6.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Free-growth model)

Model	Mean		Variance	
	Estimate	S.E.	Estimate	S.E.
Intercept	15.336***	.760	55.480***	12.473
Slope	-2.589***	.813	31.050*	15.593
Intercept-slope correlation coefficient	-18.960 ⁺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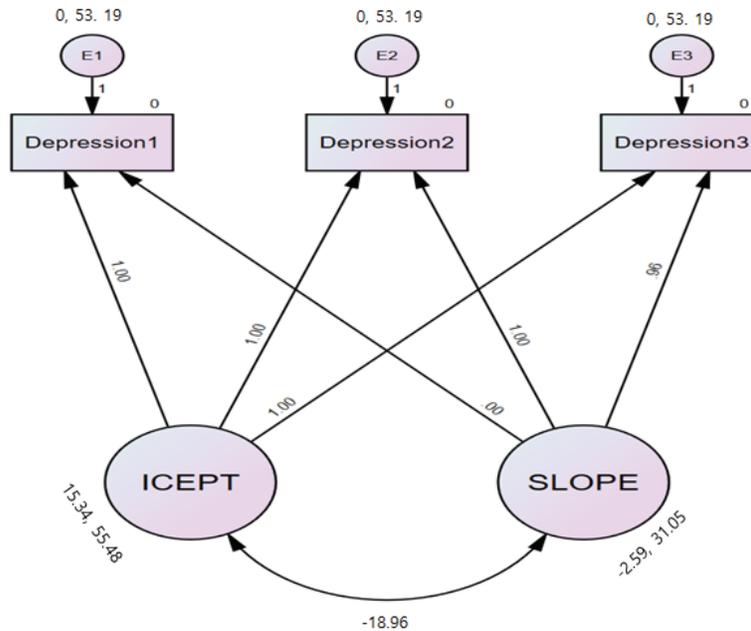


Figure 2. Result of estimation of free-growth model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은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값의 변량은 55.480(p<.001), 변화율의 변량은 31.050(p<.05)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상관계수는 부적관계(-18.960)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p<.10)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의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수준이 느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차의 우울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울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설검정

전체 변인을 한꺼번에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경로만으로 수정된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7>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df 가 1.483으로 기준치인 3보다 작아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CFI, TLI 모두 0.9 이상, RMSEA는 0.07보다 낮아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발달궤적의 추정치를 보면 다음 <Table 8>와 같다. 유의수준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만을 투입해서 분석한 것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혼인상태 등은 우울 초기치

Table 7. Goodness of fit on free-growth model of depression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65,251	44	1,483	.020	.958	.926	.051

및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는 음주량, 장애등급, 만성질환정도 등은 우울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beta = -.209(p < .01)$ 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능력정도는 $\beta = -.356(p < .01)$ 으로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도 $\beta = .244(p < .1)$ 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간경과에 따라 근로능력 증가에 따른 우울감소추세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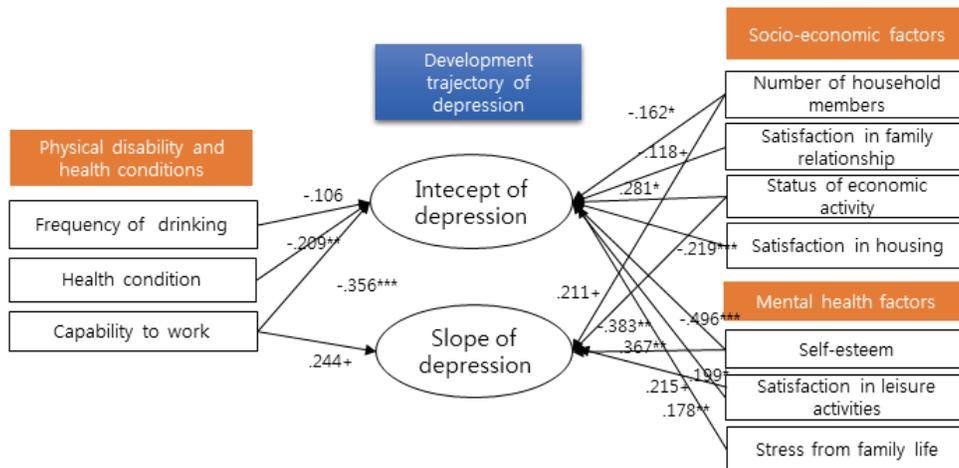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가구원수는 우울초기치에 β

$= -.162(p < .05)$ 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변화율에는 $\beta = .211(p < .1)$ 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우울감소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우울초기치에 $\beta = -.118(p < .1)$, 주거환경만족도는 우울초기치에 $\beta = -.219(p < .001)$ 로 각각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울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우울정도는 낮고,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수입만족도와 경상소득, 경제적어려움 등의 변인들은 우울초기치 및 우울변화율 모두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는 우울초기치에 대해 $\beta = .281(p < .05)$ 로 경제활동을

Table 8. Estimated values for predicting fa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Paramete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C.R.	p
		B	S.E	β		
Physical disability and health Conditions						
Frequency of drinking	Intercept	-.553	.338	-.106	-1.636	.102
Health condition	Intercept	-1.581	.547	-.209	-2.890**	.004
Capability to work	Intercept	-2.737	.740	-.356	-3.698***	.000
Socio-economic facto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tercept	-.883	.424	-.162	-1.965*	.049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Intercept	-.969	.552	-.118	-1.754+	.080
Satisfaction in housing	Intercept	-1.910	.513	-.219	-3.722***	.000
Ordinal income	Intercept	3.536	1.390	.281	2.544*	.011
Mental health factors						
Self-esteem	Intercept	-7.295	1.293	-.496	-5.641***	.000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Intercept	-1.664	.689	-.199	-2.415*	.016
Stress from family life	Intercept	1.212	.433	.178	2.802**	.005
Physical disability and health conditions						
Capability to work	Slope	1.846	1.054	.244	1.751+	.080
Socio-economic facto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lope	1.067	.588	.211	1.815+	.070
Status of economic activity	Slope	-5.293	1.924	-.383	-2.751**	.006
Mental health factors						
Self-esteem	Slope	5.309	1.801	.367	2.947**	.003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Slope	1.761	.960	.215	1.835+	.067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Intercept			.871		
	Slope			.373		

+p<.1, *p<.05, **p<.01, ***p<.001



$\chi^2/df=1.483, p=.020, CFI=.958, TLI=.926, RMSEA=.051$
 The path coefficient is a standardized coefficient that only indicates significant paths.
 $^+p<.10, ^*p<.05, ^{**}p<.01, ^{***}p<.001$

Figure 3. Effect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Model with all Variables)

하는 경우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는 우울변화율에 대해 $\beta = -.383$ 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받는 우울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 의미한다.

심리환경적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초기치에 $\beta = -.496$ ($p < .001$)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우울변화율에 $\beta = .367$ ($p < .01$)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 증가에 따른 우울감소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가생활만족도는 우울초기치에 $\beta = -.199$ ($p < .05$)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가생활만족도는 우울변화율에 $\beta = .215$ ($p < .01$)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여가생활만족도 증가에 따른 우울감소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생활스트레스는 우울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초기치에만 $\beta = .178$ ($p < .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스트레스는 우울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

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책임부담은 우울초기치 및 우울변화율 모두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이러한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우울은 9차년도 평균 15.35, 10차년도 13.17, 11차년도 12.41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정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의 연령은 평균 53.9세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건강요인 중 음주량의 평균 1.94점, 건강상태의 평균 2.72점, 장애정도의 평균 3.19, 만성질환정도의 평균 3.33점, 근로능력의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 가구원수의 평균 2.41명, 가족관계만족도의 평균 3.36점, 가족수입만족도의 평균 2.25점,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 3.30점, 경상소득의 연평균 2790만원의 소득수준을 보였다. 심리환경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평균 3.13점,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 2.62점, 가정생활스트레스의 평균 2.64점, 가족책임부담감의 평균 3.1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은 자유성장모형을 보였으며, 우울 발달궤적이 매년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이러한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혼인상태 등은 우울 초기치 및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의 우울의 초기값에는 건강상태, 근로능력정도가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는 근로능력 정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의 우울초기값에는 가구원수, 가족관계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경제활동상태가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는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환경적 요인에서의 우울초기값에는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는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이러한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파악해 본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며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건강상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초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우울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im, *et. al.*, 2004; Kwon & Park, 2005; Song, *et. al.*, 2013; Jung, 2014; Lee & Kahng, 2009)와 일치한다. 즉, 건강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애상태와 건강상태가 이들의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척도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won & Park, 2005)

따라서 건강상태는 장애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건강증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반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질병문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려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서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은 분명한 임상적 증상을 드러내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이기에, 이미 드러난 임상적 징후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 약물치료 또한 임상치료적인 방법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사회적 중재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소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능력이 우울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선행연구(Kim & Lee, 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연구결과 경제활동상태가 높은 경우는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장애인에게 스트레스의 증가와 함께 우울수준을 높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은 우울 수준을 낮추어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상태가 주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장애인 고용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결과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의무고용에 관한 법과 제도의 준수를 강조하고, 민간영역에서는 맞춤형 고용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공단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업무환경에 대한 지원부재로 고용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과 고용현장 진입과 유지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Kim & Shin, 2017).

셋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소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가 우울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결과는 선행연구(Ansseue, *et. al.*, 2008; Kim & Cho, 2011)와 일치하고 있다. 조금 더 변수를 구체화하면, 우울 초기치의 경우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Krause & Chark, 1994; Cho & Seo, 2012; Jeon & Kahng, 2009)와 일치한다. 이것은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이며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 안정감, 유대감,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상실로 인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지지는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Jung, 2014).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는 장애인과 그 가족, 일차적 집단과 그 장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주거환경만족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초기에는 주거환경만족도가 좋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im, *et. al.*, 2013; Choi & Park,

2012; Jeong & Park, 2016; Gilman, *et. al.*, 2003)와 일치한다. 주거환경은 관련법 및 제도 등을 통해 주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등록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국가 시책을 넘어서서 주거환경의 만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주거약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공간별 시공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 장애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주택과 주거에서의 행동패턴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개입으로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혜택을 장애인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우울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소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중·단기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장애인들이 우울증상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2012).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Lee & Kahng, 2009; Jeon, 2010; Cho & Seo, 2012; Jeon & Kahng, 2013; Jung, 2014)과도 일치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갖게 해주고, 장애수용 정도를 높여 주어 장애극복의지를 갖게 하는 데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Lee & An, 2011)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 및 갈등에 대한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차별(Jeon, 2010)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비장애인간의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여가생활만족이 높은 경우는 우울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소효과가 더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생활 만족이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Lee & Kahng, 2009; Jeon, 2010; Cho & Seo, 2012; Jeon & Kahng, 2013; Jung, 2014)과도 일치한다. 여가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장애와 관련된 보상의 기능 및 기분전환의 기능과 같이 심리·정서적 측면의 의미를 갖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느끼는 단조로움과 지루함, 소극적 태도 및 우울한 심리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만족감과 자기활동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였다(Kim, 2002).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여가생활 등 문화향유 정도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당수 장애인들은 연극·영화관람, 미술·음악연주 등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대부분을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소비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한 수동적 소비의 문화 예술활동이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을 요구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보조인력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정생활스트레스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초기에만 가정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Lee, 2000; Lee, 2015; Yang & Shin, 2014; Lee & Kahng, 2009; Sung, *et. al.*, 2005)와 일치한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는 개인과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이며(Jeon, 2015), 여러 가지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능력을 초과하거나 적응력에 부담을 주어 유해한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이라 하였다(Cohen, *et. al.*, 1995). 신체적 장애인들은 기능상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스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여 극복하는 힘이 극히 미약하다. 이들의 스

트레스에 대한 허약한 대처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장애인 전체에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 복지법 상 대분류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주를 포괄한 것이 감각장애인, 외부기관 장애인들의 특성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장애 유형 별로 분류하여 세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변수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울수준이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3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만성화에 의한 우울 지각성의 둔감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완화된 것인지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후속연구로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김경화의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 Ahn, Young Sun. 2007. Relation between Social Variables and D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 Alschuler, K. N., M. E. Theisen-Goodvich, A. J. Haig, and M. E. Geisser. 2008.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 Depression, Perceived Disability, and Physical Performance in Persons with Chronic Pain. *European Journal of Pain*. 12(6): 757-764.
- Angel, R. J., M. Frisco, J. L. Angel, and D. Chiriboga. 2003. Financial Strain and Health among Elderly Mexican-origin Individual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536-551.
- Ansseue, M., B. Fischler, M. Dierick, A. Albert, S. Leyman, and A. M. Pharm. 2008. Socioeconomic Correlate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The Generalized Anxiety and Depression Impact Survey II. *Depression and Anxiety*. 25: 506-513.
- Bae, Byung Ryul.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Amos 7: Theory and Actuality*. Seoul: Chunggrim Publication Company.
- Cha, Eun Ah and Sung Ok Lim. 2013. The Influence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among Disabled Peopl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9(1): 237-260.
- Cho, Hye Chung and In Kyun Seo. 2012.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Physical Disabilitie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Disability & Employment*. 22(1): 87-112.
- Choi, Byung Sook and Jeong A Park. 2012. An Effect of Hous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nalyzing the 4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in 2009.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3(5): 75-86.
- Chung, Lck Joong.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Cohen, S., R. Kessler, and L. Gordon. 1995. *Measuring St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srosiers, J., D. Bourbonnais, L. Noreau, A. Rochette, G. Brabo, and A. Bourget. 2005. Participation after Stroke Compared to Normal Aging. *Journal Rehabilitation Medicine*. 37: 353-357.
- Desrosiers, J., L. Norau, A. Rochette, G. Bravo, and C. Boutin. 2002. Predictors of Handicap Situations Following Post-stroke Rehabilitat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4(15): 774-785.
- Dooley, D. and J. Prause. 2004. *The Social Costs of Underemployment-inadequate Employment as Disguised Unemploy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ndland, J. and M. McColl. 1992. Disability and Depression: Some etiological Considerations. *Social Science Medicine*. 34(4): 395-403.
- Gilman, S. E., I. Kawachi, G. M. Fitzmaurice, and S. L. Buka. 2003. Socio-economic Status Family Disruption and Residential Stability in Childhood: Elation to Onset, Recurrence and Remission of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3: 1341-1355.
- Gweon, Hyun Soo.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oblem Drinking, Depression and Health of Disabilities: An Application of Multi-group Analysis by Poverty Level.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8(3): 131-153.
- Honey, A., E. Emerson, and G. Llewellyn. 2011.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Impact of Social Conditions.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46: 1-10.
- Hong, Sae Hee. 2008. Seminar II for Panel Data Analysis Method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Hong, Seung Hyun, Na Young Lim, and Yang Min Song. 2015. A Case Study Art Therapy of thd Deaf Elderly: With on the Depression and Self-Expressio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6): 1875-1897.
- Hyun, Hye Jin, Jin Joo Oh, Jeong Myung Choi, Hyun Joo Lee, and Soon Nyung Yoon. 2003. Ability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2(2): 164-170.
- Im, Sun Young and Tae Hyun Kim.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of Unemployed You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 51-73.
- Jeon, Hae Sook and Sang Kyoung Kahng.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the Elderl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611-628.
- Jeon, Hae Sook and Sang Kyoung Kahng.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ulti-Group Comparisons Between 65 and over and 65 of Less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 41-67.
- Jeon, Ji Hye. 2010. Stud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Rold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51-80.
- Jeon, Young Ja. 2015. The Effect of the Elderly's Stress on Depress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2): 219-236.
- Jeong, Jun Su and Mi Eun Park. 2016.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exit of Disabl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36: 55-83.
- Jeong, Soon Young. 2014. The Influenc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hysically Disabled Females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8(3): 165-177.
- Joo, Yeon Sun.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Boredom on the Drinking Behavior of the Disabled: Focused on Permanent Rental Housing in Seoul.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Jung, Deok Jin. 2014.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Depression to Disabled Elderly: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247-275.
- Jung, Yeon Hwa. 2003. The Effects of Music Appreciation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Visually Impair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Kabat-Zinn, J. 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l Publishing.
- Kahng, Sang Kyoung, Eun Hee Jung, and Byoung Soo Kim. 2015. Inequalities in the Trajectory of Depressive Symptoms and Its Associated Facto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4: 241-270.
- Kanhng, Sang Kyoung and Tae Yeon Kwon.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Use: Focusing on Tension Reduction Theory and Intoxic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 253-280.
- Kim, Ah Reum, Se Jin Song, Kyung Sun Yang, and Yoon Jeon Park. 2013.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Depression of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Academic Conference*. 2013: 141-142.
- Kim, Bao Shin, Guem Suk Yun, and Jin Suk Lee. 2013. The Effect of Group Play Therapy Programs on Stress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Children with Disabled Sibling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4(2): 20-32.
- Kim, Cheong Seok, Yu Ri Shin, and Seung Hyun Roh. 2017. Factors of Depression among the Disabled in Later Life: Comparisons of Middle Age and Old Age. *Research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54: 77-96.
- Kim, Chun Jong and Kyo Man Koo. 2017.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ies of Disabled Men with Stroke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3): 657-664.
- Kim, Deok Ju. 2016. The Effect of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of Adul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Spouse's Caregiving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371-380.
- Kim, Dong Bae and Eui Seong Sohn. 200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Depression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4): 167-187.
- Kim, Eun Hee.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ed Symptom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y.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Gyoung Hwa and Eun Kyoung Shin. 2017.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Quality of Life among Wage with Disabilities: Mediation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Crisisonomy*. 13(5): 15-34.
- Kim, Hong Yul. 2007.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Depression of Schizophrenic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1(4): 13-18.
- Kim, Hye Mee. 2016. Examining Depressive Symptoms of Visually Impaired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666-676.
- Kim, Ja Kyoung, Hye Jin Kang, and Ju Young Kim. 2007. Anxiety,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4): 461-476.
- Kim, Ji Young. 2003. Depression, Stress and Rehabilitation Motive in Cerebrovascular Disease and Spinal Cord Injury Patient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Joong Baeck and Kwang Duk Cho. 2011. The Effect of Family Members on Depression: Emphasis on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ublic Health Association General Conference on Public Health*. 2011: 52-52.
- Kim, Ki Heung. 2002. Handicapped Children and Leisur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 159-177.
- Kim, Kye Ha, Ok Soo Kim, and Jung Hee Kim. 2004. Depression i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6(2): 297-305.
- Kim, Mi Ran, Eun Jung Na, Ji Won Choi, and Won Geun Cho. 2008.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Disabled Persons by industrial Disaster.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cademic Conference, and Environment*. 2008: 80-82.
- Kim, Min Jung, In Hea Kim, Na Ra Lee, Geun Young Huh, and Keon Gok Choi. 2014.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Elderly Visual Disabilitie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7(6): 433-440.
- Kim, Seung Yun, Se Rim Kim, and Jin Suk Lee. 2013. The Effect on Housing on Health.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109-133.
- Kim, Sun Mi. 2015. The Effect of Social Stigma and Social Support on Accessibility to the Community Resources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2): 227-249.
- Kim, Sung Hee. 2010. A Study of the Burde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Family Caregiver with Depressed Pati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e Soon, Seon Yong Kim, and Myung Kim. 2014.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ersons with Dis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4): 51-62.
- Kim, Yun Jeong and Sang Jin Lee. 2017. The Effect of Health Conditions, Welfare Service Use,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among the Korean Disabled on Their Life Qua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615-62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ng, Hyei Kyeng. 2010. A Study on the Depression of the Disabled Elderly.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oo, Kyo Man. 2017. The Effects of Exercise on Depression Experience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783-791.
- Krause, N. and E. Clark. 1994. Clarifying the Functions of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Research on Aging*. 16(3): 251.
- Kwon, Bok Sonn and Hyun Sook Park. 2005.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of Female Adul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1): 169-192.
- Kwon, Tae Yeon. 2012.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Trajectory in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Alcohol Us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9(1): 59-72.
- Kwon, Yi You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Depending on Types and Degree of Physical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Disord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Chang Seek. 2010. The Effects Family Relationship of Women Immigrants on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4): 717-742.
- Lee, Eliza. 2015. Family Stress, Somatiza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3): 224-234.
- Lee, Hyun Joo and Sang Kyoung Kahng.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Psycho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3: 193-217.
- Lee, In Jeong. 2011. Moderating Effects of Life Problem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 I deation of Older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4): 34-62.
- Lee, Jong Un and Man Se Hoe. 2012. Exploring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Aged with Hearing-Impairment: Focusing on Self-Integr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3): 269-291.
- Lee, Kyung Hee. 2011. The Effect of the Group Music Therapy for Leisure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Disabled Elderly Person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85-103.
- Lee, Sang June and Soo Young An. 2011. A Study of Effect that Self-Esteem and Depression have on Disability Acceptance of People with an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Disability & Employment*. 21(3): 239-266.
- Lee, So Ran.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Depression and the Social Support of the Mothers Who have Mental Retarded Children. Master's Thesis. Daejon University.
- Lee, Sun Woo. 2015. Economic Situ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un Hee. 2007. The Coping Style and the Depression of the Family Burden caring for the Mentally III.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Light, R. W., E. J. Merrill, J. A. Despars., G. H. Gordon, and L. R. Mutalipassi. 1985.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Patients with COPD: Relationship to Functional Capacity. *Chest*. 87(1): 35-38.
- Lim, Heung Su and Song Choon Park. 2016.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Reducing Depression and Increasing Self-esteem of Elderly Audition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4): 225-235.
- Lim, Jung Hyoun. 2004. A Study on Family Burden for Schizophrenia and Alcoholic Patient' Famili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itman, T. J. 1979. *The Family in Health and Health Care: A Sociobehavioral Overview in Patients, Physicians and Illness*. New York: Free Prees.
- Manninen, L., K. Poikolainen, E. Vartiainen, and T. Laatikainen. 2006. Heavy Drinking Occasions and Depression. *Alcohol and Alcoholism*. 41(3): 293-29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Study of Status of Disabled Individuals in 201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Study of Status of Disabled Individuals in 2017.
- Moon, Joo Ran and Yong kwon Yoo. 2017.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Decrease of Depression of Females with Hearing Impairment.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Academic Conference*. 2017(6): 90-90.
- Moon, Soo Kyung. 2010.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s of Risk Factors to Depression among Elderly with Stroke-related Disabilities Dwelling in a Commun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4(4): 55-77.
- Mroczek, D. K. and C. M. Kolarz.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33-1349.
- Noh, Sung Ho. 2009. Trends Analysis and Prospects of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77: 9-39.
- Oh, Hee Jung, Soon Ae Koh, and Yoon Jo Koh. 2009. Effect of Horticultural Program on Depression of Mental Disorder Persons.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Academic Conference*. 2009: 50-52.
- Oh, Kyong Ok and Chun Sil Hong. 2000. The Burden and Mental Health of Family Caregiver with Chronic Mentally III patients in Commun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4): 499-513.
- Okoro, C. A., T. W. Strine, L. S. Balluz, J. E. Crews, S. Dhingra, J. T. Berry, and A. H. Mokdad. 2009.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4: 52-60.
- Park, Gi Hyun and Chi Yeon Yoon. 2014.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6(1): 1-14.
- Park, Hyun Suk.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by Adults Person with Dis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627-635.
- Park, Jae Sung. 2004. An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Korea Sport Research*. 15(5): 1371-1380.
- Park, Jin Young. 200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to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 of the Unemployed.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9(1): 53-82.
- Park, Jung Suk and So Ra Kwon.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Depression by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Physical Disability. *Proceedings of the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Conference)*. 2: 654-671.
- Park, Jung Suk, So Ra Kwon, Jong Serl Chun, and Ju Hee Kang.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ependence and Depression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1: 221-242.
- Park, Sang Gyu and Byeong Ha Lee. 2004. The Study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gent Pop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4): 813-824.
- Park, Se Hong, Chang Yup Kim, and Young Jeon Shin. 2009.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on Mental Health.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7: 79-120.
- Park, Soo Kyung.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Injured Workers with Disabilities Returning to Work in South Korea: Comparison of Return to pre Injury Job with Work at a New Fir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7: 149-17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y Measurement*. 1: 385-401.
- Shin, Jun Seob, Kang Hoon Lee, Kyong Soo Kim, and Yong Il Lee. 2011.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Choongbuk.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7: 361-385.
- Shin, Ki Young and Sun Sha Ok. 2000. The Relations between Midlife Working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ward/cost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8): 29-51.
- Son, Dae Ock. 2003.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Body Disposition Disability Patients of Veterans Hospital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on, Kwang Hoon. 2007. *Theory of Welfare for Physically Disabled Individuals*. Paju: Haghyeonsa Publishing Company.
- Song, In Joo and Sang Hwa Won. 2012.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s Therapy on the Depression of Marrie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8(2): 153-171.
- Song, In Uk and Seo Jin Won.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pplying Andersen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3): 23-45.
- Song, Jin Yeong, Gui Il Ahn, and Jae Woo Moon. 2013. The Influ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3(2): 5-23.
- Sung, Jun Mo. 2010.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Depression by Household's Economic Factors According to Income Leve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109-132.
- Sung, Jun Mo. 2013. Effects of Family and Household's Economic Factors on Depress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Fixed-Effect Model.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4(2): 207-228.
- Sung, Mi Hae, Ja Won Yoon, and Hae Young Son. 2005. Original Article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86-194.
- Weich, S. and G. Lewis. 1998. Material Standard of Living, Social Class and the Prevalence of the Common Mental Disorders in Great Britai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2: 8-14.
- Yang, Yu Jeong and Sung Hee Shin. 2014.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tres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Couples: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2): 60-69.
- Yoo, Yang Sook. 2001.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pinal

- Cord Injuries' Depression: Centering on the Married Man Spinal Cord Injur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2: 29-52.
- Yoon, Myeong Sock and Hyen Jung Park. 2011. Life Experience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y and Problem Drinking as Coexisting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1): 149-178
- Yu, Jong Pil.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상경, 권태연. 2008.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긴장감 소가설과 독성가설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6: 253-280.
- 강상경, 정은희, 김병수. 2015. 복지패널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우울계적 불평등과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41-270.
- 공혜경. 2010. 장애인 우울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교만. 2017. 지체장애인의 운동 참여가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5): 783-791.
- 권복순, 박현숙. 2005. 성인여성장애인의 우울의 실태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169-192.
- 권이영. 2014. 신체적, 정신적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감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태연. 2012. 사회경제적 지위와 우울수준 변화궤적: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9(1): 59-72.
- 권현수. 2010. 장애인의 문제음주, 우울, 건강의 구조적 관계: 빈곤수준에 따른 다집단분석의 적용. *지역사회 연구*. 18(3): 131-153.
- 김경화, 신은경. 2017.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5): 15-34.
- 김계하, 김옥수, 김정희. 2004.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및 자아통제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6(2): 297-305.
- 김기홍. 2002. 장애아와 여가교육. *유아특수교육연구*. 2(1): 159-177.
- 김덕주. 2016. 성인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371-380.
- 김동배, 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미란, 나은정, 최지원, 조원근. 2008. 원예치료가 산재장애인의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2008: 80-82.
- 김민정, 김인혜, 이나라, 허근영, 최경옥. 2014. 원예치료가 시각장애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 식물 환경학회지*. 17(6): 433-440.
- 김법신, 윤금숙, 이진숙. 2013. 집단놀이치료가 장애아동 형제 자매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4(2): 20-32.
- 김선미. 2015.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지지가 지역사회 자원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27-249.
- 김성희. 2010. 우울증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정신건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09-133.
- 김아름, 송세진, 양경순, 정호용, 박윤점. 2013. 원예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2013: 141-142.
- 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성인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우울 영향 요인.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40(4): 51-62.
- 김윤정, 이상진. 2017. 한국 장애인의 건강상태, 복지서비스이용과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615-624.
- 김은희. 2012. 장애인이 인지한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및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461-476.
- 김정석, 신유리, 노승현. 2017.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4: 77-96.
- 김중백, 조광덕. 2011. 가족구성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2011: 52-52.

- 김지영. 2003. 뇌혈관장애인과 척수장애인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따른 재활동기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춘중, 구교만. 2017. 남성 뇌졸중 장애인의 신체활동이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3): 657-664.
- 김혜미. 2016. 한국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우울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666-676.
- 김홍열. 2007. 원예치료가 정신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농협생명과학연구. 41(4): 13-18.
- 노성호. 2009. 청소년 비행의 추세분석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77: 9-39.
- 문수경. 2010. 지역사회거주 중풍장애노인의 성별에 따른 우울 관련요인 분석. 재활복지. 14(4): 55-77.
- 문주란, 유용권. 2017. 원예치료가 청각장애 여성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2017(6): 90-90.
- 박기현, 윤치연. 201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행동연구. 6(1): 1-14.
- 박상규, 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박세홍, 김창영, 신영전. 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황과 복지. 27: 79-120.
- 박수경(2013) 직업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 직장복귀자와 타 직장 복귀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149-174.
- 박재성. 2004.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티서치. 15(5): 1371-1380.
- 박정숙, 권소라, 전종설, 강주희. 2009. 신체장애인의 알코올의존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1: 221-242.
- 박정숙, 권소라. 2009.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패널 학습대회 논문집. 2: 654-671.
- 박진영. 2003. 사회적 지원이 실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9(1): 53-82.
- 박현숙. 2018. 성인장애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키미디어논문지. 8(1): 627-635.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출판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성미혜, 윤자원, 손혜영. 2005.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4(2): 186-194.
- 성준모. 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109-132.
- 성준모. 201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 사회과학연구. 24(2): 207-228.
- 손광훈. 2007. 장애인복지론. 파주: 학현사출판사.
- 손대옥. 2003. 국가유공 신체장애인의 삶의 질, 우울 및 일상생활 동작에 관련된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옥, 원서진. 2014. 앤더슨(Andersen)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우울 예측요인. 재활복지. 18(3): 23-45.
- 송인주, 원상화. 2012.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기혼지체장애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2): 153-171.
- 송진영, 안귀일, 문재우. 2013. 장애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구. 직업재활연구. 23(2): 5-23.
- 신기영, 옥선화. 2000.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 35(8): 29-51.
- 신준섭, 이강훈, 김경수, 이용일. 201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충북지역 거주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61-385.
- 안영선. 2007. 장년기 정신장애인의 심리, 사회적변인들과 우울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유정, 신성희. 2014. 중년부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커플관계 자료분석방법 적용. 정신간호학회지. 23(2): 60-69.
- 오경옥, 홍춘실. 2000. 지역사회 만성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9(4): 499-513.
- 오희정, 고순애, 고윤희. 2009. 원예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50-52.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양숙. 2001. 척수손상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2: 29-52.
- 윤명숙, 박현정. 2011. 장애인 문제음주자의 삶의 경험. 재활복지. 15(1): 149-178.
- 이경희. 2011.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여가활동이 후기성인장애인의 우울감소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1): 85-103.
- 이상준, 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1(3): 239-266.
- 이선우. 2015.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란. 2000. 정신지체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에리자. 2015. 중년 직장인의 가족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사회적 지지와 우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4(3): 224-234.
- 이윤희. 2007.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부담감과 대처방식 및 우울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34-62.
- 이종운, 허만세. 2012. 청각장애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6(3): 269-291.
- 이창식.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717-742.
-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3: 193-217.
- 임선영, 김태현. 2005. 청년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 51-73.
- 임중현. 2004. 정신분열증과 알코올중독 환자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수, 박송춘. 2016. 원예치료가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증 감소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4): 225-235.
- 전영자. 2015. 노인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19-236.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 전해숙, 강상경. 2009.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노년학. 29(4): 611-1628.
- 전해숙, 강상경. 2013. 장애인의 우울궤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패널 장애인부가조사를 이용한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비교. 재활복지. 17(2): 41-67.
- 정덕진. 2014.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2): 247-275.
- 정순용. 2014. 여성신체장애인의 외모관리행동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예술학회지. 8(3): 165-177.
- 정연화. 2003.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준수, 박미은. 2016. 장애인의 우울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36: 55-83.
- 조혜정, 서인균. 2012. 신체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장애와 고용. 22(1): 87-112.
- 주연선. 2004. 장애인의 여가제약, 여가권태가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은아, 임성욱. 2013.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237-260.
- 최병숙, 박정아. 2012.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3(5): 75-86.
- 현혜진, 오진주, 최정명, 이현주, 윤순녕. 2003. 산업재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및 삶의 질.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2(2): 164-170.
- 홍세희. 2008.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승현, 임나영, 소양민. 2015. 청각장애 노인의 미술치료 사례 연구: 우울과 자기표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2(6): 1875-1897.

Received: Oct. 20, 2018 / Revised: Nov. 20, 2018 / Accepted: Nov. 26, 2018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 발달궤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과 그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이 제공한 9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만19세에서 65세 미만의 성인에 해당되는 신체적 장애인 중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에 우울 관련 문항에 응답한 189명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은 자유성장모형을 보였으며, 우울 발달궤적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우울의 초기값에는 건강상태, 근로능력정도, 가구원수, 가족관계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경제활동상태,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는 근로능력정도,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 자아존중감, 여가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체적 장애인의 우울감소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신체적 장애인, 우울발달궤적, 종단연구

Profiles **Young Hwa Kim** : She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with a Ph.D. in Health and Welfare, and she is currently working as the Director of the Dodream Daycare Center for Disabled Persons. Her main interests are practice of social welfare, welfare of disabled individuals, and welfare for the elderly. Her main work is “Mediating Effect of Stress from Jo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ability, of Social Workers Working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2012)” and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of Disabled Wage Workers: Mediating Effect of Health Condi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kghwa40@naver.com).

Eun Kyong Shin : She completed doctorate in social welfare(Ph.D.) fr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Doctoral Thesis: Analysis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2007) and has served as a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since 2008. The main thesis of research is about disability study, social work practice, and development of indicators and measurement tools. The released articles are as follow. “A Study on How to Promote of Labour Rights for the Disabled with Paid Work: Focusing on Working Poor and irregular Employment, 2018”,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Sweden, 2018”,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reflected in Swedish Disabled policy-A review of LSS and the Service of Personal Assistance, 2018” and the like(fiat87@dankook.ac.kr).